

# 따뜻한이끼 그리방을

www.womenfund.or.kr 2013.6호



**특집** 여행, 치유를 돕는 여성재단 지원사업  
**나눔과 공감** 여성재단 새내기 짝꿍, 내츄럴엔도틱  
특별한 짝 '나눔촌'  
**故 박영숙**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 딸들에게 희망을

2013. 6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http://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http://www.facebook.com/kwomenfund)  
트 위 터 [twitter.com/womenfund](http://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http://happylog.naver.com/womenfund.do)

발행인 조형  
편집인 박기남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3년 11월 25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인쇄 일탈기획 070-4404-8447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는 가치로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124개 비영리 여성단체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자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공익재단입니다.

## C O N T E N T S

03 사립문 지구로의 아름다운 소풍  
조형 /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특집 - 여행, 치유를 돕는 여성재단 지원사업

- 05 대전지역 언니들의 동해안 7번국도 수학여행기
- 07 넓은 세상, 딸과 여행을 나서다
- 08 이주여성이 만드는 따뜻한 공정여행

### 나눔과 공감

- 10 여성재단 새내기 짝꿍, 내츨얼엔도텍
- 12 특별한 짝 '나눔촌'

### 표지이야기

- 15 정치하듯 그림그리는 여자 손봉숙

### 故 박영숙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 16 박영숙여사 생각 / 고은\_시인

### 소식

- 18 재정보고
- 20 후원현황
- 22 재단소식

### COVER STORY 우리 사는 이야기

손봉숙, 캔버스에 아크릴, 72.5 x 60.5(cm), 2012

성냥곽 같은 삭막한 아파트에 익숙해진 눈에 서로 이마를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산동네 집들이 정겹게 다가온다. 층층이 쌓인 집에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색을 입힌다. 그 속에 사는 모든 이들의 꿈과 행복이 틈뚫 묻어난다. 지난 시절 우리의 가난과 설움이 추억으로 아련히 숨어 있다. 그곳엔 세대를 뛰어넘는 우리 사는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인다.



## 지구로의 아름다운 소풍

장작불에 구운 고구마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뜨끈뜨끈한 온돌방 아랫목에서 오순도순 찢 고구마를 나누던 그 겨울을 그리며 사립문을 엽니다.

여성재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에는 우리 재단의 여행지원사업들이 소개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훌쩍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로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일에 몇 해 동안 매진하면서 에너지가 소진된 단체 활동가들,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 여행을 꿈으로만 키워오던 양육미혼모들의 여행이야기입니다. 함께 간 동행들이 새로운 기운을 얻고 여러 밤낮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 대한 배려를 확인하는 것은 여행지의 풍광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소중한 순간일 것입니다.

초겨울 고구마는 그 자체보다 고구마를 나눠 먹던 식구와 친구들의 살가운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어찌면 끈끈한 우정에 대한 막연한 향수와 슬픔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여행지라고 상상하면 우리는 같은 시대에 지구에서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운명을 공유한 여행 동반자들, 천상병 시인의 표현으로는 ‘소풍 온’ 또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 몇이나 시인이 노래하듯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름다운 소풍’의 조건은 어떤 걸까요? 소풍가는 아이들은 친구가 다치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손을 꼭 잡고 도시락을 나누며 꽃을 꺾거나 자연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소풍 규범을 배웁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와 자연에 대한 존중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법도이고 지혜입니다.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짝꿍을 만나 같이 기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꽃길을 걷는 소풍이 될 것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두터운 정과 후원으로 여성재단은 힘을 내어 의미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한 해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며 모든 기부자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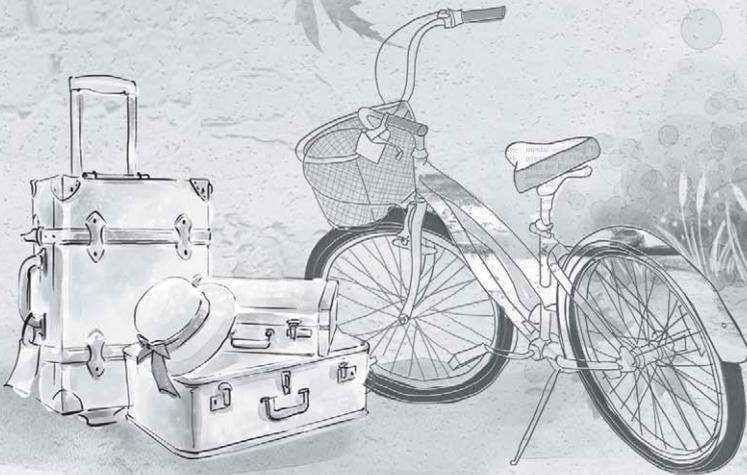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여행, 마음의 치유를 돕는다

여자는 언제 여행을 꿈꾸는가? 여행이 무엇이길래 떠나려하는가? 여행은 잘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숨이 답답하고 가벼질 때 숨을 쉬러 가는 것이라고 여행작가 권혁란은 말한다. 우리 주변의 숨이 가벼져 차오르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재단은 여성들이 직접 기획하고 떠나는 여행, 여성들이 직접 여행 상품을 만드는 사업을 지원했다. <양육미혼모여행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육미혼모가족이 고민을 나눠 줄 멘토와 함께 여행을 하고, <짧은여행긴호흡>은 쉴 틈 없이 일하는 단체활동가들에게 쉽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며, <우리는착한여행 플래너&가이드>는 이주여성이 직접 여정을 짜고 가이드하는 공정여행으로 진행되었다.

여행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고단함으로 막혔던 숨구멍을 열어 숨을 고르기를, 사람과 사람간의 따뜻함으로 함께 치유되기를, 그 에너지로 우리 주위의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전지역 언니들의 동해안 7번국도 수학여행기

임원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여성** 운동현장에서 동분서주하며 배우고, 익히고, 성장한지 어언 13년차, 그동안 나에게 생긴 두 가지 큰 변화는 솔로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덧 대전지역의 여성운동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다.

## 대전여성단체연합 활동가들, 잠시 일상을 탈출하다

여성활동가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외치지만 현실에선 거의 쉽지 않다. 늘 시작과 끝도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정들로 가득하고, 더군다나 집에 가서까지 밤잠 쪼개며 일하는 활동가들도 꽤 많다. 1987년 대전여민회로부터 시작된 지역진보여성운동은 여성의제별로 분화가 되어 작년 2012년에 6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된 대전여성단체연합을 창립하였다.

대전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그룹은 십여 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어느덧 지역의 여성리더로서 회원단체의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는 50세 전후의 그룹, 그리고 고군분투 슈퍼우먼, 일가정 양립을 외치는 30~40대 중견 활동가 그룹, 마지막으로 가슴에 콩 나듯이 보일락말락하는 신입 활동가 소수그룹이다. 그동안의 다양한 그룹간 소통, 여성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대전에서 평소 가지 어려운 곳으로, 물가인상 대비 과거 가장 좋았던 추억이 묻어나는 수학여행 시절의 컨셉을 기획하여 20여명이 함께 쉽 여행을 가게 되었다.

오랜 활동경력을 가진 실무책임자가 직접 여행계획을 짜다 보니 2박3일 일정 자체가 쉽이 없다는 등,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느라 오히려 여행길이 고생길은 아니라는 등 곳곳에서 저항이 있었지만 바다를 보는 순간, 밥을 함께 먹는 순간, 함께 삼삼오오 걷고 쉬는 순간 이 모든 생각은 사그라져버렸다.



## 잘 보고, 잘 먹고, 덜 생각하고 더 느끼는 것이 여행의 진리

여행이란 계획했던 대로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마주하는 것도 매력적이다. 인터넷이 일상이 되면서 맛집과 맛있는 집의 경계가 없음을, 답사 없는 숙소 예약의 비참함을, 지도상으로 가까운 거리도 결코 걸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행에서 알게 된다. 역시 여행은 잘 보고, 잘 먹으면 되고, 덜 생각하고 더 느끼면 되는 것이 진리일 것이다. 대전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성평등사회를 위해 우리는 일상의 '빠름'으로 인해 함께하는 이를 볼 새도 없이 앞만 보고 걸었을지도 모른다. 짧은 여행 긴 호흡으로 우리는 어느새 옆 사람과 보폭을 맞추고 눈을 마주하며 여행하는 우리를 발견했다. **W**

## 넓은 세상, 딸과 여행을 나서다

여행  
수첩1

성희씨의 아주 특별한 여행

**성희**씨는 대학 때부터 에메랄드빛 바다와 높은 하늘, 야자수가 서 있는 제주의 거리를 맘껏 걷고 싶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서른이 된 성희씨는 네 살배기 딸 미주와 제주도 땅을 밟았다.

### 외로운 출산, 아이의 하얀 거짓말

그토록 꿈꾸던 제주도여행엔 그녀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미주는 깨지기 쉬운 도자기인형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웠다. 살고 있던 전셋집이 급작스럽게 경매로 넘어가버리고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는 거의 방치하다시피하며 맞기도 하고 어두운 방에 홀로 남겨져, 불안감이 극도로 달했다. 성희씨는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다. 학원 강사 일을 하던 성희씨는 어린이집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우는 아이를 우선 살려야 했기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뱃속의 생명을 포기하자는 아이 아빠와 헤어져 부모님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외롭게 미주를 낳았다. 태어날 때도 축복받지 못했던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성희씨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자학증상에 공격성까지 보였던 미주는 다니던 어린이집을 중단하자, 자연스럽게 그 증상이 사라졌다.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아이가 말문이 트이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외로움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성희씨는 마음이 놓

였다. 성희씨는 다시 구청 주택과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담하는 일을 시작했다. 퇴근이 좀 이른 일어서 아이의 심리치료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남편이 아닌 성희씨의 고등학교 친구들과 찍은 가족사진, 아빠의 존재를 물어보는 사람들 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식은땀이 났다. 한 번도 제대로 아빠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고 회피하고 얼버무리곤 했다. 쓰다듬어주고 싶을 만큼 해맑고 귀여운 그 아이에게 사람들은 예쁘다며 “아빠는 어디있니”하고 관심을 보였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더 힘들었던 건 그런 질문에 “아빠는 돈 벌러 갔어요”라고 말하는 딸의 모습이었다. 이제 아이를 위해 용기를 내야만 했다. 더 늦기 전에.

### 아주 특별한 제주도여행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여성재단 <양육미혼모여행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행을 가게 되었다. 성희씨의 고백을 도와줄 멘토도 구하고 함께 갈 사람들과 여행코스를 정하고 예산을 짰다.

미주는 서울에서는 한 발도 들여놓기 힘든 천연잔디밭에서 맘껏 뛰고 걷고 웃었다. 폭포아래 물줄기를 맞으며 물장구도 쳤다. 그날 저녁 멘토선생님으로부터 할머니와 함

여행 수첩2

세진이와 행복을 향해 떠나다

게 사는 아이, 아빠와 함께 사는 아이, 미주처럼 엄마와 사는 아이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해 듣고, 사랑하지만 다 함께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가족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성희씨는 머리가 맑아졌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리라 생각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도망가지는 않았으니까. 미주가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아?” 라고 할 땐 아이 아빠가 한번 만나러 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 아빠는 원치 않아했다.

“꼭 가고 싶은 여행이었지만 제가 여행을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많은 양육미혼모들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여행을 다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처럼 용기를 갖기를, 아이와 함께 그 용기를 내주길 바라요.” 성희씨가 용기를 내도록 도와준 여행 덕분에 이제 아이도 아빠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낸다. 이번 제주도 여행은 아이와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

성희씨는 경매로 넘어간 집의 일부 보증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1년 넘게 법적 싸움을 하고 있으며, 올해로 공공근로 계약이 끝나면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어떻게든 되겠죠?” 라고 묻는 그 말이 성희씨 자신에게 외치는 다짐의 소리로 들렸다. 잘 될 거예요, 우리 딸이 있으니까!

**세진** 이를 혼자 낳아 키운 지 벌써 4년이 되었다. 임신, 출산과 동시에 원가족과도 단절되었고, 아이 아빠와도 연락이 끊긴 채로 4년 동안 육아와 일, 살림을 병행하며 살아왔다. 아이가 4살이 되니 내 인생을 좀 돌아보기 시작했거나 자신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아이들, 그 동안 여행다운 여행은 꿈도 못 꾸 엄마들의 기분이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2박 3일 동안 아이들은 캐릭월드, 테디베어 박물관, 에코랜드 등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다.



처음 장거리 여행을 하는 아이들은 조금은 힘들어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뛰어다니며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뿌듯하고 행복했다. 집과 회사만을 오가며 아이 얼굴만을 살피던 양육미혼모들에게 이번 여행은 삶의 감사함을 준 선물이었

고 아이와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도 만들 수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서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한다. 함께 여행 한 엄마들과도, 멘토와도 아빠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덜 상처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의지가 되었다. 짧은 여행이지만 아이와 함께 한 여행이 준 행복함. 모두에게 감사한 날들이었다. **W**

## 이주여성이 만드는 따뜻한 공정여행



**지난** 10월 어느 주말 일군의 사람들이 무주와 장수 등지로 여행을 떠났다. 가을이 무르익어 파란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으나 길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하다. 이들은 다름아닌 새로운 여행코스를 만들기 위해 떠난 플래너들이기 때문이다.

### 이주여성들을 위한 맞춤 직업 '여행플래너'

이 답사에 참여한 최봉련씨와 나미꼬씨는 군산여성전화(이하 군산여전)에서 진행되는 이주여성을 위한 강좌에 참여하면서 자연스

렵게 이 여행상품기획을 알게 됐다. 군산여전의 윤난영 부장은 그동안 “이주여성들의 다재다능함과 열의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다. 사실 한국으로 온지 꽤 오래된 이주여성들이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많은 지원을 받아왔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기량을 발휘하기란 어려웠다. 이주여성들이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개인의 꿈을 개발하면서 정착하는 것이 필요한데 취업을 위해 개설된 건 요양보호사나, 가사도우미양성과정 등 단순직종이 대부분이었다.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두 분을 보면서 고민하던 윤난영 부장은 <우리는 착한여행 플래너 & 가이드>를 계획했다. 이들의 사회참여 의지와 또 국제결혼을 선택한 용기, 더불어 2개 국어에 능통한 점은 이 상품을 기획하는데 강점이 되었다.

올해로 결혼 11년차 최봉련씨(중국), 그리고 10년차의 나미꼬씨(일본)는 플래너로서 교육을 받고 지금 다문화과정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여행코스를 짜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꼭 짜인 일정속에서도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초보자들은 눈과 귀를 열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피곤함도 잠시 접어두고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여행객들이 묵을 민박집을 고르고 지역의 식당과 메뉴 등을 살폈다. 주렁주렁 달린 사과나무며 감나무들, 마음대로 따라라며 푸근한 인심을 보여주었던 할머니, 여기 모두가 내 정원이라며 자연을 품에 안은 귀촌인까지 가족들과 여행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사람냄새 나는 풍경을 얻었다.

### 이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여행길을 열다

나미꼬씨는 이 곳 군산뿐만 아니라 여행지 곳곳에서 일본과의 전쟁으로 인한 상흔을 종종 보게 되었다. 일본은 지리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깝지만 오히려 문화와 경제적인 면

에서는 미국을 더 가깝게 생각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나미꼬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배워오고 일본과의 전쟁의 상흔이 전시된 역사박물관을 보고는 곤혹스러웠다. 나미꼬씨는 “내가 새로운 위치에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나미꼬씨는 이방인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아우르는 진정한 다문화의 정체성을 지금 체득하고 있다.

최봉련씨는 문화해설사로 일하면서 여행에 관련한 이 일이 더욱 재미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하면 할수록 그곳의 지형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한 직업이었다. 많은 여행객들, 특히 이주민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지역정보와 더불어 지역을 도울 수 있는 공정여행에 대해 설명한다면 이곳 이국땅에 와서 일하는 이들, 제 2의 고향을 대하는 이주여성들에게 관심을 넘어서 친근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정여행이라는 멋진 상품을 여행객의 입장에서 여행의 감흥을 깨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하며 6개월이란 짧은 기간동안 시행착오도 겪고 부족함도 많이 느꼈다.

이번 답사를 하면서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서울을 여행지로 포함하는 것, 또한 지역에 있는 이주여성들과의 연계도 고려중이다. 아울러 플래너로서 좀 더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는 것 역시 과제로 남았다. 곧 선보이게 될 무주, 진안, 장수를 중심으로 한 여행상품은 어떤 모습일지, 나미꼬씨와 최봉련씨는 어떤 모습으로 여행객들과 함께 할지 그녀들의 변신이 자못 궁금하다. 이주여성인 한국거주 이주민들을 위해 기획한 이 여행상품은 한국 최초의 기획상품이자 의미있는 상품이 아닐까.

내년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는 분이 있다면 이주여성인 내내는 따뜻한 공정여행 <무진장여행>으로 그들이 한번 계획해보심이 어떨지 권해드린다. 

# 여성재단의 새내기 짝꿍 내츨럴엔도텍



뽀뽀(FunFun)한 기업을 이끄는  
김재수 대표



옷자락을 살짝 적시는 가을비가 내리던 날, 여성재단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헬스케어 신소재 연구개발전문 바이오기업 (주)내츨럴엔도텍이 여성건강지킴이로 여성재단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조금은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설레고 즐거웠던 그 만남을 소개한다.

## 반려견을 가족으로 둔 이들을 위해 탁견소를 만들겠다

첫 만남은 설렘이 반이다. 가슴에서 울려대는 쿵쿵 소리에 내가 하는 말조차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하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로 들어서기도 전에 뽀뽀 터지는 개그감과 유머로 긴장을 녹여준 이가 있었다. 올해 만 13년차 내츨럴엔도텍을 당당히 코스닥에 입성시킨 김재수 대표이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수험생과 고2의 두 딸과 아내, 늦은 밤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반려견 몽글이와 사는 평범한 아버지다. 그런데 그러한 평범함에서 끝나지 않는 게 바로 그의 무기였다.

“앞으로 결혼한 여사원들을 위한 육아시설 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둔 이들을 위해 탁견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순간 좌중은 웃음바다가 됐지만 동시에 참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 바깥에서 상처난 가슴을 메워주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 비단 그건 혈육으로 맺어진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반려동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김대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보아왔고 체력을 요하는 기업의 특성상 남성 직원을 채용해야 하지 않

---

을까 했지만 지금 내츄럴엔도텍엔 많은 여성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훌륭한 인재는 능력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 다듬고 함께 커가는 일이라는 걸 그는 강조했다.

## 우리 기업은 뽀(Fun)한 회사입니다

언제부턴가 수다가 몸에 배었다며 호탕하게 웃는 그는 기업의 생명을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우리 회사는 서로 신나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문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드도 맞아야 하고 맡은 바 자기 일을 잘 하고 팀워크도 잘 맞고요. 물론 어려운 경영모토이긴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종 중간에 큰소리가 나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는 주말 밤 개그프로그램을 즐겨보며 웃음 코드도 놓치지 않는다.

“손자병법에 이르길, 용장(勇將)이 지장(智將)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이 덕장(德將)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덕장도 재수있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라며 사람들에게 웃음과 함께 자신을 기억하게 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70%는 재수가 있어서, 30%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운을 뽀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만큼 자신감이 느껴졌다. 분당의 작은 밸리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진한 결과 최근 사무실을 확장하고 공장을 짓는 등 또 다른 도약을 위해 고군분투중이다.

내츄럴엔도텍의 헬스케어 신소재는 여성들의 갱년기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한 천연 식물성 호르몬이라고 김대표는 설명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 호르몬 대체요법의

부작용으로 문제되었던 분야에 관심을 갖고 10여년을 연구한 결과 미국시장에 진출할 만큼 기능성과 안정성을 입증받았다.

## 신뢰와 약속으로 일군 성과로 사회공헌을 시작하다

42명의 직원과 함께 오늘날의 기업을 일군 그는 지난 10월31일 코스닥 상장 후,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뢰와 약속을 보증수표로 10여년을 받품 팔아 이뤄낸 성과다.

김대표는 기업인으로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꼬박꼬박 세금도 내고 기부를 통해 공동체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여성재단과 오늘 또 하나의 약속을 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저소득가정의 여성들을 위한 치과치료비지원을 시작으로 사회공헌의 첫발을 내딛었다. 또한 내년에는 갱년기 여성들을 초대하여 수다와 공연이 곁들여진 작은 콘서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재단의 식구들도 초심을 잃지 말고 즐겁게 일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세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린 즐겁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혹시 갑자기 찾아온 노안과 환경, 얼굴홍조로 지금이 순간의 변화에 불안해하며 망설이고 있는 언니들, 기운내시라! 또 다른 행복을 위해 잠시 견어야 할 것을 반갑게 맞이하시길.

여성재단 역시 설렘과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공헌을 시작한 내츄럴엔도텍과 든든한 짝꿍이 될 것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

# 특별한 짝 '나눔촌'

○ 짝을 찾는 모 TV프로그램이 있다. 며칠동안 함께 지내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고 그래서 짝을 찾는 게 주 모티브인데, 그걸 보면 웬지 마음이 맞는 이를 만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런데 또 세상엔 공짜공짜 서로 잘 맞는, 바라만봐도 그 마음을 읽는 기가막힌 짝들이 있다. 10월25일, 여성재단 기부자모임에 나눔으로 맺어진 짝공들이 모였다.



## 일하며 만난 사이,이젠 제일 친한 사이

직장동료, 안지 3년이 되었지만 잦은 출장에 친해질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 돈 관리를 똑부러지게 하는 민경씨와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정연씨는 동갑인데도 서로에게 존경할 만한 친구로, 공연관람을 하며 취미생활도 함께하는 짝공이 되었다. 여성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는 정연씨가 민경씨에게 부를 권했고 흔쾌히 동참했다. 이제 만으로 29세. 곧 맞이할 30대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해졌다.



## 연인처럼 사는 모자커플

엄마와 아들로 한집에 살고 있다. 형숙씨는 시설에서 준서를 낳았고 준서가 돌이 되면서부터 시설에 돼지저금통을 보내곤 했다. 엄마를 요리 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준서. 장난감과 생일잔치에 쓸 요량으로 용돈을 아껴가며 저금해오던 준서는 고민끝에 엄마의 뜻에 따라 여성재단 <고사리손기금>에 돼지저금통을 기부했다. 재단으로부터 감사의 카드를 받고 기부자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나서야 마지막 남은 아쉬움까지 말끔히 해소되었다.



###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라고 우기는 그녀들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제자. 사회복지학과 최우수 졸업생 고복순씨는 병석에 계신 어머니를 보며 건강한 노후의 삶을 고민하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짧고 명쾌한 강의, 강직하면서 따스한 성품, 그러나 철없는 김수정교수의 매력에 빠졌다. 김수정교수는 언니처럼 이끌어주는 피아노선생님 복순씨를 만나 짝궁이 되었고 매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100인 기부 릴레이를 하며 여성재단과 나눔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 오래 만나 이제 믿고 가는 사이

요가강사와 활동가. 안강숙씨는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할 때 요가를 가르쳐준 왕인순씨와 1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오고 있다. 오랫동안 100인 기부 릴레이 이름으로 활동해온 인순씨는 평소 영혼이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강숙씨와의 만남이 필연이고 운명이었다. 강숙씨는 평소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정 많은 인순씨의 요청으로 센터에 계신 분들과 딸, 딸의 친구들까지 릴레이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다. 두 분 모두 탁월한 나눔의 달인이다.

## 나눔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나의 기부 노하우

자신이 기부하는 것도 모자라 주변에 이 좋은 일을 알리기 시작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나눔 노하우가 한가득이다. 무엇이 이들을 기부의 수렁에 빠뜨리게 했는지 조금 자세히 들여보자.

**고복순** 사실 기부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면서, 100인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었죠. 저는 피아노를 치는데 사람들은 제 목소리를 좋아하더라구요. 목소리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요.

**최형숙** 준서 이야기가 여성재단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지자 울산에 사는 가혼이도 돼지저금통을 기부하겠다는 연락이 왔대요? 이 기회에 서울의 준서가 1호, 울산의 가혼이가 2호, 전국 돼지저금통 기부 릴레이를 해보면 어떨까요?

**김수정** 사실 사람이 중요하죠.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각자 기부를 요청하는 매력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강숙** 제가 기부를 권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1만원이 그분들에게 10만원 이상의 가치 일 수 있어요. 인터넷 बैं킹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 이름으로 제가 기부를 하고 이체증을 보내드려요. 평생 100인 기부 릴레이를 하겠다는 분들을 보면 감동이에요.

**왕인순** 강숙씨는 평소에 늘 기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니까, 여성재단을 잘 알지 못해도 강숙씨를 믿기 때문에 선뜻 기부해주세요.

## 여성재단이라는 짝꿍

강숙씨의 얘기를 듣다보니 기부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경계를 허물고 믿음을 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들에게 여성재단은 어떻게 다가갔을까?

**송민경** 소식지가 오고, 뉴스레터도 읽어보면서 평소 재단의 활동을 알고 있어요.

**최형숙** 저는 행사를 통해 100인 기부릴레이를 알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کم이나 기부를 요청하는 것, 완주하는 것도 잘 몰랐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کم이라는 역할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왕인순** 요즘 대체로 실무자들이 이메일로 연락하는데 저는 전화가 좋아요. 전화 한 통으로 안부도 묻고 이کم이 요청도 하면 정감 있을 거 같아요.

**안강숙** 장황한 보고서 대신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만 알려주면 돼요. 물론 감사 문자를 보내주면 뿌듯할 것 같고, 옆에서 왕인순씨가 끊임없이 격려를 해줘요. 우리 어머니는 일흔이 넘으셨는데, 1만원 기부한 곳에 오늘 간다고 하니깐 많이 기뻐하셨어요.

**최형숙**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면 힘들어도 기부를 하게 돼요. 우리 큰언니가 얘길 들더니 좋은 일 한다며 준서 저금

통에 2만원을 넣어주더라고요. 사실 준서의 저금통은 설치해서 200원, 책 읽고 100원, 용돈 받아서 모은 의미있는 거예요. 어디에 쓰이는지 관심있어해요.

**김수정** 저희도 기부릴레이 홍보영상에 나오는 걸 보면서 계속해야겠다는 얘길 해요. 어떻게 하면 특히 20대 남자들의 기부를 높일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물어보죠.

**안강숙**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카카오토리에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일일이 말로 하면 불편하지만 단체방에 올리면 얘기하기 편하니까.

**왕인순** 100인 기부릴레이 소식에 평범한 사람들의 기부 이야기나 숨은 조력자들의 얘기도 실리면 좋을 거 같아요.

**최형숙** 요즘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결혼비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름으로 기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시민청 같은 곳을 빌려 결혼식을 하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정연** 오늘 많은 분들이 기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좋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동안 잘 몰랐던 여성재단에 대해서도 알고 또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있는 카톡 같은 곳에서 기부를 독려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녁시간이 지나 밤이 오기까지 기부와 나눔, 여성재단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눔이라는 다리를 통해 인연을 맺은 짝꿍들과의 만남으로 소중한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W**

## 정치하듯 그림 그리는 여자 손봉숙

손봉숙. 정치학자,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다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가. 한평생을 몸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현장을 유유히 떠나 우리 앞이 아닌 우리 옆에 다시 섰다. 민들레와 대나무, 사람냄새 풍기는 동네와 집들이 그려진 작품을 들고서.

시민운동가로, 여성계 맑은정치여성연대가 선정한 100인의 여성정치인으로, 2004년 민주당 전국구 1번으로 정계에 입문해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2008년 국회를 과감히 떠난다.

“내가 국회를 떠날 무렵, 그러니까 2008년 그해가 마침 65세가 되는 정년의 나이였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6월 예술의전당 아카데미 강좌를 등록하고 40대 엄마들 사이에 섞여 미술공부를 시작했다.

“정치는 예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면에서 예술과 일맥상통하죠.” 그는 출장이나 연구 등으로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눈에 들어오던 아름다운 풍경을 연필로 스케치라도 하고 싶었다. 그 아쉬움이 커져서 쌓여 지금 그가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15권 이상의 책을 저술할 만큼 필력을 지닌 그는 작가의 꿈을 꾸기도 했지만 우선 컴퓨터와 이별을 감행했다. 그리고 이제까지 누군가와 늘 함께 했던 일들이 아닌 혼자만의 것을 찾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림이었다.

그에게 예술적 감흥을 불러일으킨 첫 번째 사물은 민들레였다. 어릴 적 집 마당에 핀 민들레. 봄이 되어 잔디를 심기 위해 흙으로 갈아엎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민들레와 눈을 맞추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의 첫 번째 그림의 소재가 되었고 1년 내내 민들레만 그렸다. 지금 그는 집을 그리고 있다. 집은 사람이 있고 삶이 있고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게 꾸준한 소재를 1년 이상 계속 그리면서 화실에서 밥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자신이 정말 그리고 싶은 것을 찾고 있는 중이다.

지난 봄, <우리 사는 이야기>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 그의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 한참을 바라보다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는 사람사는 일상과 그 주변에 대한 열정으로 정치학을 했고 정치를 했고 그림을 그렸다. 그는 여전히 한 길로 가고 있었다. **W**



한국여성재단의 초대 이사장이자 한국사회 여성계의 대표적인 리더로서 생의 마지막까지 현역으로 살다 지난 5월 17일에 타계하신  
故 박영숙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편집자주

## 박영숙여사 생각

### 고은 시인

유럽에서 몇 달 체류한 후 귀국한 한참 뒤에서 박영숙 여사의 별세를 알게 되었다. 참담하다는 느낌이 길게 이어졌다. 한가닥 자책도 있었다. 그 한없는 진실(信實)의 모습을 이 세상의 어디서도 보을 길 없게 되고 만 것이다.

이상하다. 안병무 박영숙 부부는 가을 혹은 늦가을의 청랭(淸冷)한 공기를 숨 쉴 때의 그런 기운을 내뿜는다.

오래전 심원(心園) 안병무선생 영결식장에서 나는 친지의 신분으로 조사를 읽었다. 그이의 죽음도 가을의 것이었다. '이 가을은 삶은 가을입니다' 라는 허두가 그때의 내 심경을 나타냈다. 안선생이 미국 버클리에서 체류할 당시 심장질환의 급환으로 현지 병원에 응급 입원했을 때 '제발덕분 식물인간으로라도 살아있기만을 바란다' 라는 애절한 기원을 품고 있었던 박여사였다.

이제 박영숙 안병무 부부의 삶을 잇는 이는 현세에서 외아들 재권이의 가족이 있다. 그리고 그이들을 자주 또는 이따금 기억하고 추모하는 친지들이 이 세상의 각계에 산재하고 있다.

실지로 박여사께서 중환자생활을 할 때 한 측근은 그이의 한평생 일상이 보여주던 근면, 치밀 그리고 의지

관철의 건강과 그 적극적인 생활의 충일에 익숙한 나머지 어이없어 하기도 했다. 그만큼 그이는 새처럼 이른 아침부터 삶을 바쁘게 시작하고 별처럼 한밤중까지 지칠 줄 모르는 성실성을 실시간으로 수행했던 것이다.

나는 수유리시절 그 두 분의 매혹을 잊지 못한다. 안선생이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다른 인사들과 함께 서대문 옥방에 갇혀있는 동안 밖에서 박여사는 그 난데없는 옥바라지와 함께 여봐란 듯이 수유리 집을 마련해 놓는 대지 상속의 여성성을 보여주었다.

그 집은 전형적인 70년대 중산층의 주택인데, 조출한 이층집 마당에는 후박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 온갖 나무들이 울울해서 하나의 영성적(靈性的)인 정원을 떠올리게 했다.

우리는 4월 혁명기념일인 4월19일이면 묘지 추모식을 정부측의 요식행위와는 별도로 거행하고 나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가두시위에 나서다가 제지당하거나 연행당하거나 하기 일쑤였다. 그때는 으레 안, 박의 집으로 몰려가곤 했다. 김재준목사, 함석헌옹, 문익환 문동환 형제도 함께였다. 그러노라면 언젠가 세계 박여사는 빈대떡이나 팬케이크 등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광주리로 만들어 들어왔다. 밥도 국도 반찬도 흡사 눈두렁 들밥인심으로 푸짐하고도 남았다. 어떤

때는 술꾼인 나에게 술병을 내오기도 했다. 동지들은 밥상머리에서 한잔의 취흥에 더욱 다져지고 강해졌다.

안선생은 독일유학시절 덴마크까지 가서 키에르케고르 묘지를 참배한 적이 있다. 그 독신 사상가의 묘비 돌에 나도 당신처럼 평생 독신으로 살며 철학과 신학에 파묻혀있겠다고 맹세했다. 그런 독신자 안선생이 험난한 시국의 조국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까지 인권과 여권(女權), 기독교신앙 실천의 전위(前衛)에서 선구적으로 활동하던 독신의 박영숙여사와 극적으로 맺어졌다.

그이들의 부부생활은 지성과 영성 그리고 실존적 자유와 사회적 지향의 합창을 이루었다. 이런 동지적인 사랑의 삶이 안병무신학의 국제성으로 펼쳐지고 그의 사건신학을 당연히 민족민주민중의 현장신학으로 나아가게 했다. 박영숙여사는 그이대로 가정과 사회를 양립시켰다. 박여사의 현실참여는 여성운동의 표상 밖에까지 확대됨으로써 현실정치로서의 민주화에 그이를 투신하게 만들었다.

두 인문(人文)의 실제화 현실화는 지극히 희귀한 인간 긍정을 과시한다. 놀라운 것은 내 문학에 대한 안선생의 깊은 이해였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전 기간 민주화운동의 동지애적 친밀도 역시 각별한 것이었다. 그런 나머지 내 늦은 결혼식도 그의 수유리집 마당에서 대내적(對內的)으로 거행하게 되었다.

박영숙여사를 비롯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 이문영교수부인 김석중, 이해동목사 부인 이종옥여사 등 여러 남편 옥바라지 부녀들이 송화가루까지 얻어다가 송화떡을 하고 여러 혼례음식을 장만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때 안선생은 자신의 48세 결혼

기록을 내가 깨뜨렸다고 불평하는 축시를 했고 백낙청은 신부 이상화의 영문학에 빗대어 민족문화와 세계문학의 합치라고 축하해주었다. 사회는 리영희형이 북한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던 머리로 진행했다.

이 혼례 뒤 우리는 자주 만나서 시국을 규탄하고 나라의 진로를 고민하고 또한 형이상학적 담론에도 열중했다. 이 혈족 분위기로 인해 언젠가는 우리가 한 골짜기에 모여 사는 공동체를 기획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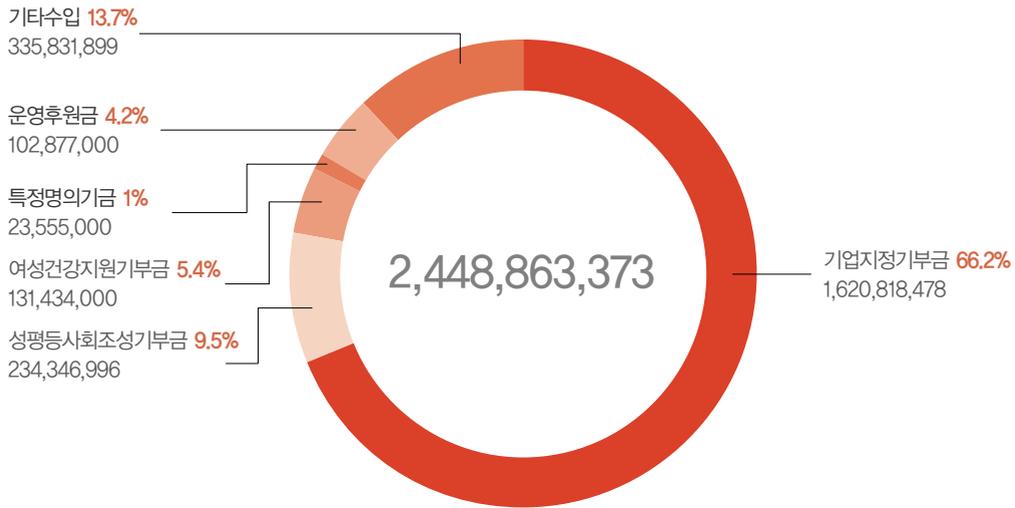
이런 시절을 지나서 안선생의 타계라는 비보를 우리는 견디어냈다. 그 비보가 하나의 추억으로 된 이제 우리는 박여사의 별세를 견디어내고 있는 것이다.

박영숙여사는 평소 무엇 하나 과장할 줄 몰랐다. 어떤 난제가 가로놓여도 그것을 침착하게 해결해나가는 긴 실행이 있었다. 또한 박여사는 누구를 탓하거나 폄하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비판과 최대한의 객관적 이해를 그이의 관습으로 삼았다.

놀라운 것은 박영숙여사가 실질적이되 또한 본질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과연 박여사는 그 심신이 건전한 사람이었다. 누구에게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인 적이 없다. 그러던 그이가 언제부턴가 안색에 피로를 보이기 시작했다. 안철수재단 이사장으로 그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도 그 피로감이 눈에 띄었다. 나는 이런 박여사 발병의 인상이 먼저 세상 떠난 남편에의 무시간적인 애도 때문인가 하고 여길 때도 있었다. 끝내 박영숙여사는 자신의 병고(病苦)를 털어내지 못하고 그 병의 은유가 되었다. 우리는 실로 소중한 사람 실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의 그 진지함과 그 폭넓은 덕성 등을 되새길 때마다 그 부재로부터의 실재를 경험하게 된다.

박영숙여사와의 지나간 모든 추억은 우리 모두의 무형의 기념물이 되고 있다. **W**

수입 • 기간 : 2013. 1. 1 ~ 2013. 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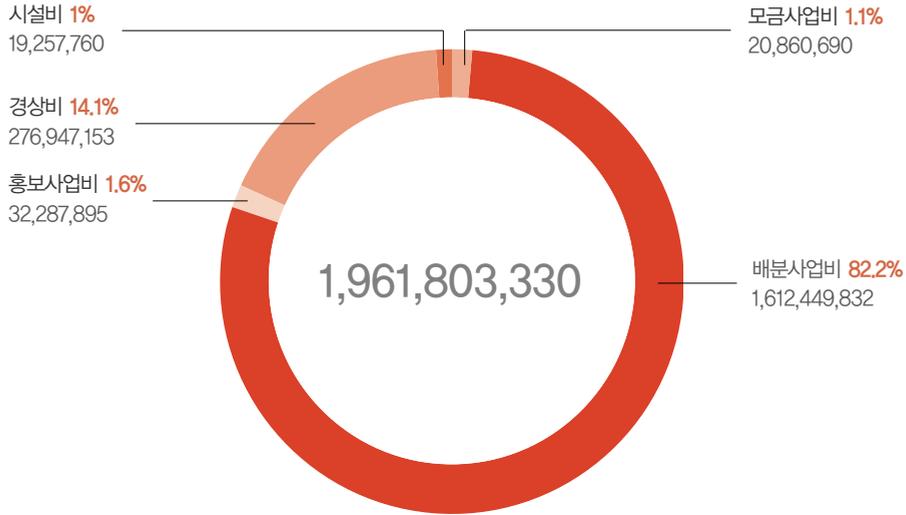
(단위 : 원)

항 목	내 용	금 액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620,818,478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만클럽(안전,안심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콩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234,346,996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31,434,000
특정명의기금	고사리손기금, 애경산업기금, 도호기금 등	23,555,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업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02,877,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 SOS 상환기금 등	335,831,899
<b>총 수 입</b>		<b>2,448,863,373</b>

# 2013년 1-10월 재단 수입 및 지출

보내주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출 • 기간 : 2013. 1. 1 ~ 2013. 10. 31



(단위 : 원)

항 목	내 용	금 액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경비	20,860,690
배분사업비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고사리손지원사업 2.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여성가장 및 자녀, '엄마에게 희망을' 여성활동가건강지원사업 • 다문화아동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다문화가정 자립지원 프로젝트 (우정사업본부) • 희망날개 - 다문화 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미혼모 자립지원사업 (CARL MARKS FOUNDATION) • 불빛장학금(탈성매매여성장학사업) • 싱글맘 홀로서기 지원사업(애경PLAZA) • 희망멘토링-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사업(LG이노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멘토와 함께 떠나는 양육미혼모 여행지원 프로젝트(도후기금) 3.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여성NGO장학사업 (유한킴벌리) • 시설개선헌원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 - 짧은여행 · 긴호흡 (교보생명) • 기업지정사업 등 4. 사회적돌봄사업 • 안전안심우리동네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한화생명)	1,612,449,832
홍보사업비	소식지, 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32,287,895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76,947,153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9,257,760
	<b>총 지 출</b>	<b>1,961,803,330</b>

# 2013년 9-10월 개인기부자 명단

보내주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금강데코 김기훈 강경림 강경희 강기숙 강남식  
 강덕수 강덕주 강덕희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문영  
 강미라 강미정 강미주 강민아 강병희 강보순 강보은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아 강승희  
 강신해 강인숙 강연조 강원화 강은나 강인순 강제훈  
 강중남 강중완 강주관 강지연 강지원 강진애 강태호  
 강현선 강현숙 강현옥 강혜선 강혜숙 강호간 강호성  
 강희숙 경춘옥 고경표 고경희 고명화 고명희 고보성  
 고복신 고영아 고영숙 고유지 고은정 고원원 고주형  
 고현숙 고현칠 고호균 고희경 고희숙 공명숙 공선영  
 공옥분 공인자 광영선 광옥자 광유규 광은숙 광지혜  
 광희환 구인수 구본경 구상권 구영남 구영만 구영선  
 구옥순 구은경 구인선 구자민 구재용 구재웅 구춘자  
 구충분 구태희 구현주 구 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기석 권난실 권민경 권민영 권민정  
 권신선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승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민 권영선 권영순 권영애 권영옥 권오일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경 권태희  
 권혁주 권혜경 권혜영 권혜영 권희숙 금경림 김갑순  
 김갑식 김건우 김경구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민  
 김경석 김경선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 김경식 김경식  
 김경심 김경아 김경애 김경임 김경자 김경주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계숙  
 김공태 김광미 김광수 김광욱 김광웅 김광이 김광자  
 김광재 김광하 김광하 김국찬 김규식 김규태 김근애  
 김근해 김금례 김기상 김기선 김기선 김기수 김길아  
 김나리 김나영 김남옥 김남주 김다영 김대규 김대규  
 김대승 김대영 김대식 김대식 김대일 김덕일 김덕자  
 김도경 김도수 김도협 김동섭 김동식 김동애 김동천  
 김동호 김동희 김두용 김둘순 김득현 김만환 김매화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 김명옥 김명의  
 김명일 김명임 김명혜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령 김미림 김미봉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옥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영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민진 김민희 김병관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연 김보영 김복열 김봉일 김분기 김상근 김상본  
 김상순 김상욱 김상진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석순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식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철 김성진 김성호 김세화 김세희 김소현  
 김수경 김수미 김수미 김수열 김수영 김수영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수희 김숙경 김숙경 김숙식  
 김숙진 김숙희 김숙희 김순기 김순기 김순덕 김순덕  
 김순미 김순복 김순애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영  
 김순자 김승규 김승철 김시진 김신선 김신정 김실환  
 김이라 김애숙 김양자 김양희 김연정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규 김영균 김영길 김영남 김영란  
 김영래 김영미 김영미 김병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선 김영선 김영아 김병옥 김병옥 김병옥 김병옥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주 김영주 김영준  
 김영채 김영하 김영화 김영훈 김영희 김영희 김오목  
 김옥분 김옥은 김옥천 김 용 김용관 김우술 김우향  
 김은주 김유미 김유미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경  
 김윤선 김윤수 김윤정 김윤주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미 김은미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실 김은아 김은아  
 김은아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곤 김익자  
 김인경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순 김인순 김인자 김인춘 김지현 김잔디 김장림  
 김장호 김재구 김재민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현 김재현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미 김정미 김정선 김정순 김정숙 김정숙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화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종덕 김중순 김중일  
 김중주 김중철 김중화 김중희 김주미 김주영 김주영  
 김주원 김주원 김주현 김주현 김준수 김준희 김중근  
 김지란 김지석 김지영 김지원 김지는 김지일 김지행  
 김지혜 김진구 김진근 김진명 김진선 김진수 김진아  
 김진용 김진원 김진일 김진주 김진태 김진표 김진환  
 김진희 김진희 김차순 김창규 김창근 김창순 김태순  
 김철홍 김철희 김철희 김태희 김태희 김태희 김태희  
 김태연 김태연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택수 김하영  
 김학명 김학복 김해조 김행욱 김행민 김항미 김한관  
 김 현/김민정 김현경 김현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수  
 김현숙 김현숙 김현옥 김현옥 김현자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성  
 김형재 김혜련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 김혜순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정 김호진 김홍기 김홍식 김홍자  
 김효선 김효순 김효정 김희경 김희경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나동순 나문용 나성주 나성희 나윤경 나정옥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신석 남윤인순  
 남정민 남진숙 노무현 노선숙 노영숙 노옥련 노윤범  
 노윤숙 노은숙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노희정

도서관친구들 도이현 도현철 동고은 두석호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인혜 류재욱 류준희 류태한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명옥희 명진숙 모은영 모혜자  
 모희연 문경숙 문경숙 문경호 문금주 문길화 문명숙

문명옥 문미란 문미애 문보경 문복순 문새미 문성원  
 문숙남 문승일 문영호 문은영 문은영 문인선 문인숙  
 문재웅 문재호 문정근 문정례 문진석 문체희 문희영  
 민가영 민경희 민승례 민옥기 민용자 민형태 민희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숙 박경순 박경순  
 박경아 박경희 박광후 박규리 박근영 박근희 박금래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길선 박노숙 박대근 박동렬  
 박동연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라 박미향 박미희 박민숙  
 박민영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병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봉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신인 박성근  
 박성택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영 박수진  
 박수향 박숙희 박순공 박순규 박순옥 박순교 박승일  
 박승진 박승호 박신규 박신연숙 박애경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숙 박영실 박영아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순 박옥필 박옥분 박옥삼 박옥순 박은숙  
 박은숙 박은우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이순  
 박익수 박석선 박석선 박재욱 박정근 박정례 박정미  
 박정숙 박정숙 박정순 박정영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종남 박종순 박종진 박종호  
 박준영 박준용 박준호 박지수 박지연 박지연 박 진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범 박찬주 박찬철  
 박채용 박춘애 박춘순 박한솔 박 현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현정 박현희 박형주 박혜란 박혜숙  
 박혜숙 박혜숙 박희연 박홍순 박효숙 박홍철 박홍희  
 박희숙 박희옥 박희옥 박희순 박희순 박희순 박희순  
 배선희 배소정 배수경 배숙일 배영숙 배영희 배정민  
 배준학 배한영 백경남 백경원 백경자 백기덕 백부서  
 백선희 백순애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옥호 백인선  
 백형철 백화선 변영선 변영희 변영태 변형석 변화순  
 복진수 봉성근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덕순 서동규 서미석 서민정  
 서선숙 서수남 서승록 서순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주 서영철 서우찬 서희선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진숙 서현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영 석미희 석미희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길자 선운수 선진규 설경중 설영순 성경남  
 성경애 성고운 성기환 성명중 성인순 성정현 성지희  
 성현녀 성형주 소옥녀 소진선 소희로자 손낙희 손만순  
 손병준 손상호 손석철 손순연 손담규 손연숙 손영숙  
 손은주 손재광 손정길 손현숙 손현숙 송경옥 송경희  
 송기옥 송기원 송다영 송미령 송미영 송민규 송민수  
 송방희 송상희 송세령 송수자 송세령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윤희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재용  
 송정아 송정에 송주연 송주연 송현현 송현주 송혜영  
 송희순 송수정 신디은 신대환 신동석 신동철 신동화

신명순 신미숙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선미  
신성태 신소영 신승희 신연옥 신영미 신영희 신용신  
신용현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정애 신지원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춘화 신현인 신현정 신현철 신혜숙  
신호상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재운 심미영 심복길  
심숙경 심영애 심영희 심은주 심재훈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춘숙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심효연

아라이유가 안경자 안기선 안기현 안다는 안덕남 안명순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병철 안봉순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선희 안성희 안세준 안소연 안숙경 안순화  
안승용 안승옥 안은성 안재준 안재철 안종희 안준호  
안지현 안진희 안태경 안필낙 안현희 양금순 양도숙  
양미초 양미현 양서량 양세경 양오식 양은석 양이숙  
양일순 양재섭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혜선  
양후진 양희영 양희은 어혜진 엄선애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연미자 연은희 연미화 연민순 예은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진 오미향 오상병 오상호  
오성규 오세훈 오수원 오수정 오숙환 오승용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경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지섭 오지성 오춘희 오형원 오희주  
옥지형 옥천수 왕성옥 왕성주 우식숙 우상숙 울산여성  
의전회 원경숙 원예달 원예복 원예금 원용길 원유정  
원혜숙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난희  
유명중 유무선 유미라 유서연 유선기 유선희 유숙자  
유승완 유승희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윤임 유은자  
유은주 유은총 유일영 유재경 유재선 유재용 유정미  
유정신 유정자 유정희 유정희 유해미 유현정 유혜정  
유호근 유화숙 유화영 유희정 유희정 육성희 육은정  
윤경숙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석남  
윤선정 윤 숙 윤수규 윤순남 윤영경 윤영미 윤영배  
윤영국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재환 윤정보 윤정분 윤정자 윤정화 윤정희 윤정희  
윤창희 윤혜영 음종성 이가운 이기춘 이기희 이강산  
이건우 이건정 이경미 이경선 이경신 이경애 이경애  
이경자 이경자 이경희 이경희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현 이귀연 이규백 이규선  
이근재 이근주 이근현 이금녀 이금복 이금순 이금재  
이기연 이나래 이남희 이덕남 이덕민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신 이동훈 이도희 이라영 이리화 이명신  
이명순 이명옥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숙  
이미숙 이미영 이미영 이미영 이미용 이미자 이미정  
이미진 이미향 이미향 이 민 이민경 이범기 이범희  
이병관 이병도 이보희 이복순 이복희 이복찬 이상근  
이상미 이상민 이상엽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선례 이선미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선이  
이선자 이선필 이선희 이선희 이성규 이성열 이성우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현 이성희 이소형 이소희  
이승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연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인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현 이수훈  
이수희 이숙인 이숙향 이숙희 이숙희 이순덕 이순옥  
이순임 이순자 이순현 이순희 이순희 이순주 이순진

이승현 이승현 이승희 이승희 이시연 이심옥 이쌍선  
이연나 이애란 이양주 이연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수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옥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주  
이영주 이영천 이영혜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옥희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용찬 이원대 이원식 이원유 이우경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운성 이윤열 이윤희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숙 이은순 이은영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용수 이의리 이의영 이의환 이인숙 이인숙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욱 이재원 이재준 이재한 이점무 이점순 이점민  
이정숙 이정정 이정옥 이정옥 이정원 이정원 이정자  
이정자 이재구 이재영 이종남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홍 이주현 이주홍 이주희 이준숙 이지락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석 이진숙  
이진아 이진영 이진용 이찬근 이창하 이철수 이철순  
이청자 이춘아 이차우 이태용 스타피노 이태원 이태현  
이태화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선 이해경  
이행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순 이현준 이현지 이현진  
이형근 이혜경 이혜경 이혜련 이혜숙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대 이호관 이호선 이호선 이호태 이홍제  
이희국 이희영 이희숙 이희재 이희영 이희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숙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이희정  
임경수 임경숙 임경아 임경옥 임경자 임기수 임덕희  
임덕희 임선희 임선희 임성무/김말순 임성원 임성택  
임수연 임수진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영미 임영숙  
임영주 임인숙 임인영 임정규 임진식 임진철 임재홍/  
대왕철강 임춘근 임현숙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홍석

자숙에 장경희 장경혜 장금옥 장기정 장길용 장남중  
장덕현 장동애 장명련 장명숙 장명숙 장봉화 장서만  
장소연 장소현 장순연 장순화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숙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인 장영혜 장옥형  
장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아 장정임 장정희  
장주연 장철경 장태옥 장태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경  
장혜숙 장혜영 장혜자 장희연 장희원 전남미 전명남  
전미경 전미경 전민경 전부숙 전순소 전순현 전순형  
전양숙 전영미 전영애 전영희 전옥순 전용수 전원수  
전은서 전은진 전진숙 전진영 전태자 전현정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경숙 정경옥 정구선 정구홍 정근하  
정길석 정길식 정나일선 정다은 정다정 정덕희 정명숙  
정민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선 정미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수 정민자 정삼여 정상남(조성은) 정상철  
정선미 정선아 정선영 정선자 정성년 정성태 정성화  
정소영 정숙운 정승희 정선희 정연원 정영숙 정영애  
정영오 정영지 정옥영 정용주 정원영 정원운 정원희  
정유연 정유주 정윤희 정은경 정은선 정은자 정은자  
정은주 정은지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숙 정정숙 정정숙 정정숙 정정희 정지용  
정지윤 정진옥 정창남 정창자 정태호 정하자 정 현  
정현미 정현미 정현아 정현혜 정혜경 정혜민 정혜진

정희경 정희영 제승옥 조경미 조경자 조경희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환 조명숙 조 미  
조미경 조미래 조미영 조미진 조배원 조보신 조복희  
조상래 조상진 조서희 조성덕 조성만 조성민 조성환  
조성희 조세화 조수용 조승호 조승희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숙 조영순 조영환 조영해 조옥라 조윤세  
조윤희 조은영 조은영 조장란 조장숙 조장현 조장현  
조정훈 조정희 조정희 조주현 조지혜 조진숙 조진희  
조춘이 조판용 조하연/조하리/조하린 조향례 조혁중  
조현덕 조현주 조 형 조혜련 조혜수 조호정 조화자  
조홍식 조희연 주경은 주명희 주석중 주선숙 주애애  
주 영 주해숙 주향숙 지상구 지숙자 지용구 지일조  
진소미 진주미

차경선 차승춘 차재명 차주영 차진희 차철용 채금순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지연 채진식 천병석  
천소연 천영희 천정윤 천화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숙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 최길석  
최길용 최희덕 최도란 최동길 최미래 최명진 최문영  
최문희 최미경 최미애 최민호 최병목 최병희 최보숙  
최석준 최선아 최선아 최성남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순복 최순임 최애경  
최양호 최영숙 최영옥 최옥숙 최은정 최원석 최우경  
최유진 최유진 최유미 최윤희 최은경 최은정 최은주  
최은주 최은희 최 인 최인숙 최인이 최인형 최인형  
최재선 최재숙 최재식 최정수 최정아 최정윤 최정은  
최정은 최정인 최정하 최종악 최진희 최철만 최태진  
최하늘 최행자 최현숙 최현주 최현주 최현진 최현진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옥 최혜경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효진 최희경 최희화 추교훈 추연식

탁은숙  
편민자 평혜연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경란 하두련 하만호 하순원 하승신 하영희 하윤숙  
하자은 하태성 하학자 하현정 한경희 한명식 한명희  
한미옥 한미정 한민경 한민숙 한병숙 한숙옥 한승미  
한승호 한애자 한영애 한옥련 한용호 한원경 한일순  
한정연 한정옥 한정의 한정현 한춘희 한태동 한혜경  
한혜준 함유찬 함윤경 함정순 허남선 허영희 허명하  
허선이 허성우 허순진 허소정 허순자 허신학 허유정  
허유진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은실 허정숙 허혜영  
허호영 현선주 현준식 호옥희 홍경숙 홍근혜 홍기태  
홍미경 홍미리 홍민선 홍미정 홍상숙 홍상호 홍석보  
홍선영 홍성은 홍성희 홍수연 홍순명 홍순영 홍영구  
홍영애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정인 홍진선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황경연 황경주  
황규정 황내래 황미영 황미향 황병덕 황석민 황성락  
황은주 황은지 황은택 황인선 황인자 황인희 황정섭  
황정혜 황주은 황진택 황미양상

### 필리핀 보홀섬 소녀들을 위한 15일간의 특별모금캠페인



여성재단은 지난 10월 필리핀을 강타한 지진으로 피해 입은 보홀긴급구조 센터(Bohol Crisis Intervention Center)를 돕기 위한 2주간(11월1일~15일)의 특별한 모금을 진행했다. 이 기관은 성폭력피해 소녀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2013년 여성재단이 <고사리손기금>을 지원한 곳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손녀손자 사랑을 보여준 경기여교 동창분들,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한 부모님들, 마을행사에서 모은 기부금을 보내온 단체들, 해외 피빈 콩기부자들, 그리고 성주재단과 안철수 의원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총 6,663,970원을 조성하였다. 기부금은 전액 보홀섬의 BCIC와 태풍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 여아보호시설에 생필품 구입 지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 석별의 정을 나누며, 2013 다문화가정 외갓집방문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며, 다음을 기약하는 석별의 정을 나눴다. 지난 11월2일, 이화여대 이삼봉홀에서는 여행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24가족이 다 모이진 못했지만 베트남 여행사진을 보며 채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추억했다. 특히 부모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어린이들은 낯선 풍경 베트남과 외갓집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사전에 가졌고 여행을 다녀 온 후, 외갓집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갖게 되었다.

### 이주여성들이 직접 만드는 페스티벌, <2013 윈크페스티벌> 개막

다문화여성들이 지난 1년 간 갈고 닦은 공연실력을 선보인다. 11월30일, 건국대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2013 윈크페스티벌>의 막이 오른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역에서 밴드, 춤, 연극 등 문화동아리 활동을 해 온 커뮤니티들이 총 출동하며 지역의 경계를 넘어 더불어 함께 하는 다문화사회로의 의미를 문화공연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 여성이 미래의 답이다, 2014년 성공회대 실천여성학과 장학생 모집

여성재단과 성공회대는 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 만 3년 이상 활동한 여성활동가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4년 제8기 장학생을 모집 선정한다.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은 한국사회 여성리더십의 성장과 인재육성 차원에서 유한킴벌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취득하게 된다.

# 만 개의 공감, 만 명의 소원이 이루어내는 기적같은 변화

060-707-1010 

늦은 밤까지 일하는 엄마를 대신해  
집안 살림과 어린 두 동생을 돌보는 지수는  
이제 고작 11살입니다.

베란다가 버스 기사 숙소와 이어져 있어  
언제든지 외부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지수네 집.  
그래서 세 자매는 늦은 시간까지 동네를 배회하다  
마지못해 집에 들어가곤 합니다.

사정을 알게 된 동네 주민과 돌봄센터 선생님들이  
정성을 모아 지수네가 이사할 집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허름하고 불편하지만 안전한 집이 생긴 지수는  
더 이상 세상을 경계하지 않고  
또래 아이들처럼 밝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만클럽 1호 기부자 양희은 홍보대사

110만 명 방과 후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 있는 나홀로 아동의 숫자(보건복지부, 2009년)  
하루 3건 이상, 매해 1,000건 이상 발생 아동성폭력피해(경찰청 통계)  
15,000건(2008년) → 22,000건(2012년) 성폭력피해 지난 4년간 43% 증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의 전화(060-707-1010)를 걸어주세요!**

- ARS캠페인 기간 : 2013. 12. 1 ~ 2013. 12. 31
- 참여방법 : 060-707-1010번으로 통화연결시 안내멘트 후 5,000원 자동결제
- 관련문의 : 02-336-6463(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womenfund@womenfund.or.kr

※ ARS후원금은 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성폭력근절을 위한 캠페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돌봄과 나눔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꿈꾸며  
1999년에 창립된 국내 유일의 민간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그 소통의 기회들을 열고 나누면서  
자립과 치유, 화해와 성장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제 서로가 격려하고 지지하는 친구이자 이웃으로 관계 맺는  
돌봄과 나눔의 숲으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 12월, 그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일시 및 장소

일 시 2013년 12월 6일(금) 오후6시30분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 ● 프로그램

6:00~6:30 참가자 등록

6:30~7:10 저녁식사

7:10~8:10 사 회 최광기 토크앤컨설팅 대표

축하연주 KAN\_West Africa 음악연주팀

감사인사 조 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재단영상 돌봄과 나눔 그 숲으로의 초대

기부공감

객석토크

공로패 수여故박영숙 한국여성재단 고문

8:10~8:30 축하공연 이상은 홍보대사